

2차전지 기업 변신하는 '광학필름 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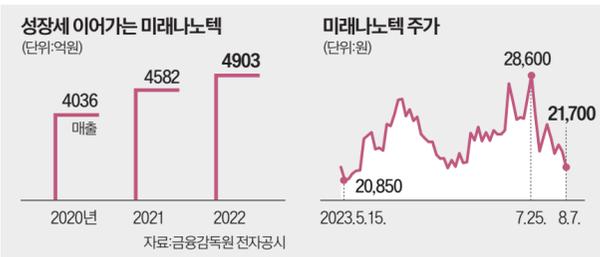
미래나노텍의 도전

광학필름 전문 제조기업 미래나노텍의 김철영 회장(사진)은 올해를 "2차전지 전문기업으로 회사의 정체성과 지향점이 바뀌는 원년"이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2차전지 소재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중국 기업과 손잡고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하는 등 배터리 관련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2002년 8월 설립된 미래나노텍은 광학필름 업체로 널리 알려져 왔다. 폴리에스테르(PET) 필름에 패턴을 가공한 광학필름을 연간 120km 생산한다. 여의도(8.4km)를 14번 덮고도 남는 물량이다. 미래나노텍은 55인치 이상 대형 TV 용 광학필름 분야 세계 정상이다.

이처럼 광학필름 분야에서 입지를 굳힌 미래나노텍은 지난해 양극재 소재 업체인 미래첨단소재(옛 제엔케이)를 인수하면서 변신을 모색했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도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미래첨단소재는 수산화리튬 가공이 주요 사업이다. 수산화리튬과 양극재 첨가제를 분쇄 가공한 뒤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에 납품한다.

지난 3일 충북 정주 오장읍에 있는 본사에서 만난 김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광학필름 글로벌 톱 안주 안해 양극재 소재사 인수... 中과 합작도 "신사업 앞세워 3년내 매출 1조"



의 변신 과정을 설명하면서 "회사가 2차전지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만큼 올해가 회사 진로가 바뀐 원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래나노텍은 배터리 소재 기업 인수를 넘어 한-중 합작회사까지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할 체비를 마쳤다.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허난켈뉴에너지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5년 연 1만t 생산능력(매출 3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나노텍이 투자한 한-중 합작회사는 전구체 사업이 핵심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재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다. 약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존도가 높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규제 장벽을 낮추고자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손을 잡는 사례가 업계 새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에서 주로 논의가 오가던 한-중 배터리 소재 합작기업 설립에 중견기업인 미래나노텍도 시동을 걸었다.

김 회장은 삼성SDI에서 디스플레이 부문 연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광학필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창업했다. 이제는 광학필름으로 거둔 성공을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2차전지 분야로 눈을 돌린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은 "대형 TV 시장은 정체됐다"며 "2차전지 분야 사업이 커질 것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기술력을 갖춘 회사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나노텍의 지난해 매출은 4903억원, 영업이익은 97억원이었다. 광학필름 사업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2차전지 소재에서 매출이 커지는 구조다. 김 회장은 "2025년이 되면 고객사의 생산 능력이 4~5배 늘어난다"며 "매출 1조 원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주=최형창 기자

'K보일러' 중남미 공략 박차

경동나비엔, 멕시코 시장 노려 귀뚜라미, 새 CEO가 진출 앞장



국내 주요 보일러 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을 다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 6월 말 멕시코 법인 개소(사진)를 열고 본격적인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멕시코는 보일러 수요는 많지 않지만, 해발 2000m 이상 고지대에서 온수기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다. 공기가 희박해 오작동하는 온수기가 많기 때문이다. 멕시코 온수기 시장은 연간 70만 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동나비엔은 자사 '콘덴싱 온수기'가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칠레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등 고지대 온수기 시장을 공략해본 경험도 있다.

경동나비엔은 47개국에 보일러와 온수기 등을 수출해 국내 보일러 전체 수출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진출한 북미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캐나다와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동나비엔 매출의 67%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새 사령탑에 오른 김학수 대표가 내수 중심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글로벌 영업력 확대

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기존엔 주목하지 않던 중남미 시장에 초점을 맞춰 해외사업을 확장하자는 내용의 'CEO 메시지'를 최근 사내에 공유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현직화 전략·영업력 강화와 신제품을 통한 신시장 선점 등의 내용이 메시지에 담겼다.

귀뚜라미는 1999년 중국 톈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2014년 미국법인, 2018년 우즈베키스탄법인, 2020년 러시아법인을 차례로 설립했다. 현재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통해 미국 시장엔 보일러, 러시아 시장엔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판매하고 있다.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에도 기름·가스보일러를 수출하고 있다.

양사의 해외 진출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판로를 찾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국내 보일러 시장은 연 110만~145만 대 사이에서 정체돼 있다. 보일러는 평균 수명이 10년 내외로 다른 생활가전에 비해 신규 수요가 크지 않다. 강경주 기자

中企도 '부장님' 대신 '김프로'

"수평적 조직으로 능률 향상" 삼표 등 잇단 '직급 다이어트'

중견·중소기업계에 직급 간소화와 수평적 조직 바람이 불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지난달부터 직급 호칭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사원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이어지던 직급을 매니저, 책임, 수석으로 간소화했다. 대신 팀장과 파트장, 공장장 등 직책자만 별도 호칭을 운용하기로 했다. 삼표 관계자는 "임직원의 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삼화페인트도 지난달부터 호칭 제도를 77년 만에 폐지했다. 기존

사원부터 부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전부 '프로'로 통일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개인의 업무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에너지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누리플렉스도 사내 호칭을 '프로'로 일원화했다. 모든 업무를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해 일하는 방식과 성과 보상 제도로도 도입했다. 김영덕 대표는 "프로젝트 협업과 업무 효율성, MZ세대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도 지난해 7월부터 임원과 팀장을 제외한 팀원끼리는 '프로'라고 부르기로 했다. 최형창 기자

"도로에 5cm 물차면 자동 알림"

오피스 중기

모바일 'AI 도로 인프라 솔루션'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곳이 잇따르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스타트업 모바일은 도로가 침수되면 관리자에게 스마트폰 알림을 보내는 '인공지능(AI) 도로 인프라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이다.

2020년 모바일을 창업한 김민현 대표(사진)는 "도로에서 5cm 높이의 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지난달 집중호우 때 곳곳에서 시나 구의 도로 관리자에게 알림이 갔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의 도로 인프라 솔루션은 대전, 안양, 제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와 터널 20곳에 설치돼 있다. 이 솔루션은 AI가 노면에서 반사되는 음

파 정보를 분석해 노면 재질을 10가지 이상으로 분류한다. 여름에는 침수에 대비하도록 돕고 겨울엔 블랙아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합하다. 김 대표는 "노면에서 반사된 음파 신호의 특성과 노면 상태에 대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통해 모델을 확립한 후 이를 활용해 노면 상태를 추정하는 기술"이라며 "블랙아이스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모바일은 이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해 캐나다에서 인프라 센서 테스트에

나섰다. 김 대표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도로 음파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자동으로 집적화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근 기자



"오피스 문서 편집도 AI 시대"

이해석 폴라리스오피스 부사장

확보한 데이터를 거듭 비교하고 학습해 새 창작물을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본사에서 만난 이해석 폴라리스오피스 부사장은 "문서 편집 과정에서 글자도 '뽕'이라고 적으면, 문서에서 뽕 소리 효과음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폴라리스오피스의 주요 제품은 문서를 열고 고치고 꾸미는 등의 통합 작업을 돕는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다. Hwp, Doc,

PPT, Xls, PDF 등 여러 종류의 문서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편집할 수 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기존 업무 시스템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243개국에서 1억2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은 이달 '생성형 AI 플랫폼 오피스'로 발돋움한다. 오픈AI의 챗GPT,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스테빌리티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이미지를 창작해 활용하거나,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꿔주는 등의 기능을 활용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오영립 기자

대한민국의 내일이 좀 더 행복해지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World Top K-water!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